

특집 - 古都 경주를 지키자

고속철 제 3노선 부상 '새국면'

- ... 현대불교신문사는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에 ...○
- ... 적극 동참, 특별취재반을 구성 매주 추진운동현황을 심 ...○
- ... 홍보하고서 서명 동참자 내역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

성보문화재 훼손 우려로 논란을 빚고 있는 고속철도 경주노선이 건전-화천 방면으로 우회하는 제3의 노선이 제기되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지도참조)

지난 2일 경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개최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고속철도의 경주통과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3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건전-화천 우회노선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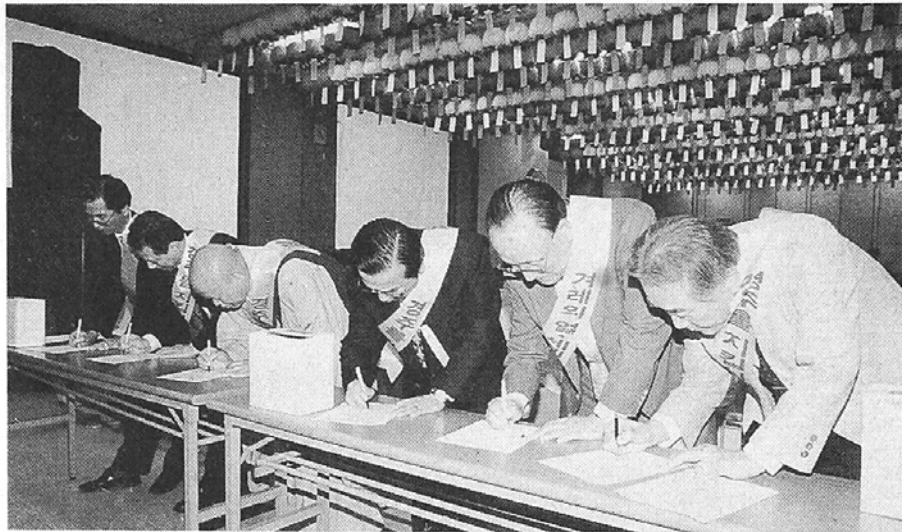
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국대학교수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은 건전-화천방면으로 우회하는 것으로 이 노선은 문화재보호는 물론 미래 경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철도 경주노선 제3안은 고속철도 경주통과백지화 운동본부, 경주를 사랑하는 시민 연대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경주남산과

경실련·동대교수 15km 우회안 제시 건교부 "공사비 많고 애로구간" 난색

설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앞서 동국대학교 교수불자회(회장 장충식교수)는 지난달 10일 고속철도경주통과에 대한 견해를 통해 "공정의 차질과 예산손실 등이 시비통과 노선 강행의 구실이 될수 없다"며 "잘못이 밝혀졌다면 주저함 없이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

15k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일치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고속철도건설 주무부서인 건교부는 "건전-화천노선은 난공 사지역으로 엄청난 공비가 추가로 소요되고 공정이 길어져 전구간 건설에 차질을 빚는다"며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본부'는 지난달 18일 발대식과 동시에 1백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이기영 추진위원장, 서문각 진흥원이사장, 김철희 태고종신도회장, btn사장 태응스님(오른쪽 부터) 등이 서명에 동참했다.

한편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 운동본부가 추진중인 1백만 서명운동은 불교계는 물론 일반인의 동참이 풀을 이어 범국민운동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다. 1백22개 참가단체(산하단체 포함

6백여개) 별도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고속전철 경주통과 백지화운동본부는 지난 4일 도봉산과 관악산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과 사찰 참배객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았다. 또한 공해추방운동불교인모임도

4일 종로5가 마로니에 공장에서 전국민에게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 서명운동 동참을 유도하기로 하고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펼쳤다. 이준엽 기자

인터뷰

● 문화재위원회 임창순 위원장 ●



"세계적인 역사도시 경주고도의 역사환경 훼손과 문화재 파괴를 초래할 건설교통부의 고속철도 경주통과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최고 의 심의기능을 가진 문화재위원회의 임창순위원장(한림대학교수·82)은 고속철도 경주통과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건전에도 지하에 매장된 문화재가 많기에 그것이 그대로 파헤쳐진다면 유물훼손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경주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관건이라는 입장은 문화재에 대한 정부의 인식변화를 촉구했다.

"유물훼손 불보듯...우회노선도 반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위원장은 고속철도가 경주를 통과하게 되면 문화유적과 경관은 물론 도시형태가 파괴되는 등의 부작용이 명확하기에 "애당초 계획했던 대구-부산 구간의 직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주지역의 문화재 보존으로 인해 일부 경주시민에게 장기적으로 불이익을 주고있는 무제를 해소하고 경주고도의 효율적 보존을 위해 외곽지역에 신도시건설을 추진하고 고도보존법, 역사고도풍치 보존법 등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임위원장은 문체부에서 거론하고 있는 우회노선에 대해서도

김재경 기자

경주 경실련 공청회 요지

고속철도 경주노선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려 건교부안인 도심통과노선(계획노선)과 문체부안인 건전우회노선(기본노선)간에 열린 공방이 벌어졌으며, 경실련이 주장하는 수정된 건전우회노선(제3의 수정노선)이 새롭게 제기됐다.

경주경실련 주최로 지난 2일 경주교육문화관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8인의 토론자와 시민 2백여명이 참석, 경주노선의 항방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펼쳤다.

이날 김태호교수(동국대)는 우회노선이 남산을 파괴할

뿐 아니라 최소한 2.4km 이상의 직선이 필요한 고

속철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굴곡이 심하다는 점을 들어 건전에서 화천으로 통과하는 수정된 우회노선을 주장해서 주목을 받았다.

강교수는 또 자연경관의 파괴와 공사비 과다 등을 들어 도심통과노선을 반대하면서 "북녘들역은 마치 트로이의 목마처럼 교통혼란과 무질서한 도심개발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대해 신중서 고속철도공단건설본부장은 이조리역으로 역사를 옮기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우회노선으로 변경할 경우 3년의 공기연장과 3조원의 금전손실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복교수(서울대 고고미술사학)는 "도심통과노선은 문화재 밀집지역을 통과하는 관계로 문화재 발굴기간이 소요돼 공기가 오히려 길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명태교수(단국대 지역개발학)는 "문화재는 경제적 가치로는 따질 수 없는 시간적 가치가 지대하다"며 문화재 파괴를 줄일 수 있고 건전지역 부도신 개발효과가 큰 우회노선을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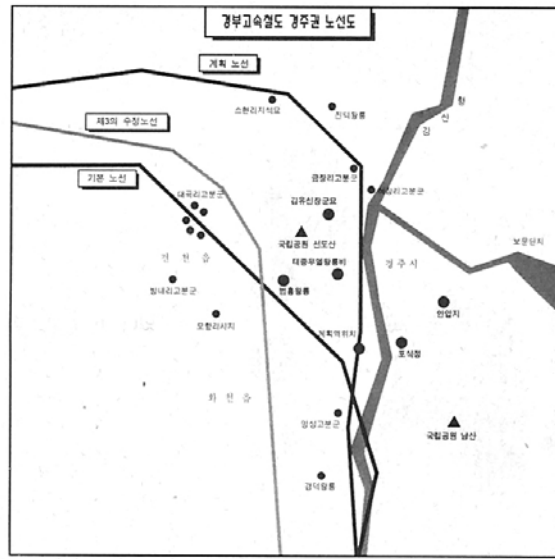
김성수 경주시의원, 박순걸 경주시 문화관광국장, 김재석교수(경북산업대 도시교통학) 등은 관광수입 증대, 우회노선의 경우에도 문화재 파괴의 우려가 있는 점, 일정구간의 지하화 등을 통한 문제해

결 등을 들며 도심통과노선을 주장했

다. 김성범 문체부 학예연구사는 고속철도 도심통과노선이 경주를 동서로 양분한다고 반대하면서 우회노선을 주장했다. 또 건전역부터 남산까지의 구간을 지하화해서 문화재를 보호할 것을 주장했다.

보존과 개발, 문화재 보호와 고속철 유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이날 공청회는 결국 팽팽한 의견대립만을 표출한 채 막을 내렸다. 다만 하나의 수확이라면 건교부와 문체부가 새로운 수정노선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한 점이다.

경주=이윤호 기자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추진위원회

고속철 경주통과 무엇이 문제인가

문화재 70여점 열차진동에 훼손 불교성지 남산·선도산 황폐위기

현재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속전철 경주구간 노선 주변에는 국보1개, 보물 9개, 사적 17개, 천연기념물 1개, 민속자료 1개 등 29개의 국가지정문화재와 유형문화재 2개, 기념물 3개 등 7개의 지방문화재가 분포해 있다. 또한 문화체육부가 제안한 외곽노선안에는 국보 1개, 보물 6개, 사적 16개 등 국가지정문화재 23개의 유형문화재 8개 기념물 3개 등 11개의 지방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이처럼 건교부나 문체부의 노선은 모두가 엄청난 문화재 파괴의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이들 노선은 경주남산과 2백m 이내(문체부안은 50m)에서 평행선으로 달리고 있어 남산의 불교유적 훼손이 더욱 엄청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속철도 경주통과 문화재가 훼손되는 가장 큰 요인은 소음과 진동이다. 프랑스의 TGV 고속철은 시속 150km로 달릴때(최대속도 300km) 200m밖까지도 70dB의 소음과 진동을 준다. 이것은 진도 2의 지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람이 200m 밖에서도 몸으로 진동을 느낄수

있고, 깜짝 놀라게 되며, 창문이 덜컹거리게 된다. 따라서 프랑스는 주위 500m 이내에는 시설물이 없는 곳으로 TGV노선을 세웠다.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본부는 '환경과 경관의 훼손도 만만치 않다'고 주장한다. 경주의 선도산과 남산 사이에 역사가 지어질 경우 연간 6백만의 관광객과 3백만의 포항, 울산등 주민이 환승하는 역세권이 형성되고 신시가지로 발전하게 된다. 이는 국내 최대의 불교성지 남산과 신라의 성산인 선도산의 황폐를 의미하는 것이다.

환승역 가까이 위치한 22점의 남산성보와 태종무열왕비(국보),서악동 삼층석탑, 효현동 삼층석탑, 배동석불 등 중요문화재가 역세권의 중앙이 되고 환승차량의 집결, 소음과 오염, 행락객에 의한 쓰레기 공해로 1천여년 내려온 문화재가 1~2백년 앞을예측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경주에 산재해 있는 민족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주남산에서 최소한 15km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안이다.

불교가득, 책방가득

항상 길 떠나는 마음, 책방 여시아문이 함께 하겠습니다

독자와 함께 하는 독서회원제

책방 여시아문의 회원이 되시면 언제든지 필요한 서적을 편리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며 본 책방에서 발행하는 신간 안내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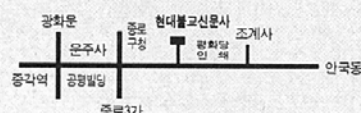
현재나 책방 여시아문은 고객의 입장에서 책에 관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책방 여시아문이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도 회원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모십니다. 회원가입은 책방에 비치된 신청서 및 전화, 팩스로 신청해 주십시오. 가입비는 무료입니다.

항상 독자를 찾아가는 통신 판매

지방에 계신 독자나 산사의 스님, 책방에 나오시기 어려운 분을 위해 통신 판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 주문은 전화,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송료는 책방 여시아문에서 부담합니다.



찾아오시려면



매일 발행하는 독자들의 귀와 눈 "책방 여시아문 소식지"

매일 15일 발행하는 여시아문 소식지는 불교 서적에 관한 최신 정보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 새로 나온 책-각종 불교서적 및 불교 관련 신간을 빠짐 없이 수록하였습니다.
- 독자가 읽은 나의 불서-애독자와 함께 추천하는 불서
- 불교 출판 편집자가 뽑은 명저-불교서적 출판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불교서적 전문 출판 편집자가 추천하는 불서
- 책방 여시아문이 뽑은 이달의 책-본 책방에서 양서라고 검증된 불서만 가려 뽑아 실었습니다.
- 불교 출판사를 찾아서-불교 출판 문화 발전에 항상 노력하고 있는 불교 출판사 탐방
- 베스트셀러 20선-책방 여시아문 월간 판매 집계 20선.
- 책방 여시아문 자세히 보기-독자 여러분께 보람이 되고자 본 책방 소장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을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